



여성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

더모 헤어플란트 모발이식센터 정진욱 원장

머리숱 줄고 가리마 넓어지면 치료 받아야

찰랑거리는 풍성하고 빛나는 머릿결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다.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여성들의 탈모증이 늘고 있다. 이제 탈모증은 남성만의 고민이 아니다.

탈모가 시작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숱이 줄어들어 두피가 노출되게 된다. 머리숱이 줄어들면 외모에 변형이 생기고 나이 들어 보인다.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성들도 많이 받지만, 특히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더욱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탈모로 인해 변형된 자기 외모에 자신감을 잃거나 심한 경우는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여성에 비해 남성의 탈모증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며, 즉 탈모증이 있다고 해도 남성들은 먹는 발모제와 모발이식수술을 통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얼마 전까지 여성들의 탈모증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으며, 그 연구도 부족한 상태로 남성들에 비해서는 치료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여성 탈모에 대해서는 때로는 오해가 많다. 잘못된 탈모상식에 근거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계속 할 경우 탈모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여성들의 습적인 고통, 여성 탈모의 주요한 오해에 대해 알아본다.

◇오해 1. '여자는 대머리가 없다?' No!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2009년 국내 40대 탈모 환자 수는 남성이 1만8537명, 여성이 1만874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로 가면 남성 8905명, 여성 1만 2141명으로 오히려 여성 환자의 숫자가 더 커진다.

속설과 달리 '여성 대머리'는 존재하고, 부모의 탈모증은 성별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유전이 가능하다. 심한 대머리는 남성들이 더 많지만,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정도로 탈모증이 빈번하며 사회가 복잡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 탈모 인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탈모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발은 자연적으로 서서히 하루에 50개 내외가 빠지며 그 자리에 새로운 모발이 형성돼 성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 중심부의 모발이 만성적으로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줄어들어 여성형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윗머리 부분이 가늘고 부드러운 모발이 형성되며 가리마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시작된다.

단,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과 달리 탈모가 진행되어도 이마의 모발선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자의 일부는 남성형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남자의 일부도 여성형 탈모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해 2. '여성탈모환자가 남성 탈모약 사용해도 된다?' No! = 남성 탈모환자가 주위에 있으면 호기심에 탈모 치료제를 먹어보는 수가 있다. 그러나 여성 탈모환자들에게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남성형 탈모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



더모 헤어플란트 모발이식센터 정진욱원장이 머리숱이 줄고 가리마가 넓어져 고민하고 있는 여성과 탈모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50대 넘으면 남성보다 많아져

남성 탈모약 사용 오히려 위험

여성 탈모 아들·딸 모두에 유전

탈모 샴푸·화장품은 도움 안 돼

테라드와 두타스테리드 제제를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 복용할 경우, 남성 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부서진 조각을 만졌을 경우에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여성들에게 효과가 없어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도 여성에게는 필요 없다. 여성형 탈모에는 바르는 치료제인 엘크라넬 알파나 미녹시딜 등의 치료제를 사용한다. 이 치료제들은 많은 여성 탈모환자들이 사용해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다.

먹는 약물 중에는 약물 효모와 케라틴,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모발 영양제가 있으나 여성 탈모증의 치료제는 아니다.

◇오해 3. '여성 탈모는 유전이 아니다?' No! =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탈모증도 유전된다. 부모에 있는 탈모인자는 아들이나 딸에 상관없이 모두 유전된다. 다만 여성에게 많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이

나 아로마타제 효소에 의해서 탈모증의 진행이 억제되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는 심한 탈모증이 드물다.

여성 탈모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는 탈모 유전자와 남성호르몬이며, 그 외 과도한 지방섭취로 인한 중성지방의 증가, 복부비만, 당뇨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호르몬의 불균형,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다.

◇오해 4. '여성 탈모증에 샴푸, 화장품이 도움된다?' No! =탈모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탈모 샴푸'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성 탈모증의 치료제로 허가한 약물은 미녹시딜과 엘크라넬 알파 두가지 뿐이다.

최근에는 여성 탈모증의 치료에는 이들 인증된 약물과 두피 저출력 광선레이저, 전자기장 치료기 그리고 모발이식수술이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더모헤어플란트 모발이식센터 정진욱 원장은 "탈모 샴푸는 두피 상태를 개선하는데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탈모 방지와 발모 촉진 효과는 없기 때문에 샴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또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 의학적 효과를 확인한 의약품과 탈모 샴푸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개발 '심혈관계 스텐트' 상용화

외국산보다 성능 좋고 가격 저렴해 빠르게 보급될 듯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

전남대병원이 개발한 심혈관계 스텐트(CNUH stent)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을 획득,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조 허가를 받은 스텐트는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센터(센터장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 지난해 특허등록 된 것이다.

심장질환 특성화센터는 이 스텐트를 앞으로 장성나노바이오센터에 있는 한국심혈관계 스텐트 연구소와 공장에서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심장병 환자 시술에 사용된 외국산 스텐트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뛰어난 국산 스텐트가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이번 스텐트는 매우 유연하고 시술하기 편리하게 개발됐다.

특히 심장 수축 때 발생하는 혈관 놀림에 잘 견디며 혈관을 튼튼하게 넓혀줄 수 있으며, 재협착 발생률도 거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스텐트의 성능은 수많은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됐으며, 국내외 학회에서도 실렸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996년 전남대 의과학 연구소에 국내 최초의 돼지 심도자실을 설립해 최적의 스텐트 전용 동물실험 공간을 확보



정명호 교수

한 후 꾸준히 연구해 온 결과이다.

현재까지 스텐트 관련 연구업적만 논문 374편, 국제발표 310회, 특허 31건, 저서 12편, 기술이전 4건 등 국산 스텐트 개발에 앞장 서왔다. 또한 전남대병원 심장센터는 연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장중재술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이번 의료기기 제조 허가 증 획득으로 값싸고 성능 좋은 국산 스텐트를 널리 보급하게 된 것은 수많은 심장병환자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용화되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연구센터의 지미선·안영근·정명호 교수가 최근 제48차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최우수 연세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에서는 당뇨병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임상적 예후에 대한 비만의 영향에 관한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비만한 당뇨병을 동반한 심근경색증 환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2학년 132명 헌신 봉사 다짐

8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

남부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박미경)는 지난 14일 대학 협동관 대강당에서 '제 11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사진)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32명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과 사명을 이어받아 일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성실히 봉사해 인간존중을 실

천하는 참간호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했다.

조성수 총장은 "진심으로 헌자와 가족들을 대해 사랑을 실천하고, 협력과 봉사의 자세로 실력 있는 전문 의료인이 돼달라"고 격려했다.

8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이어오고 있는 남부대학교 간호학과는 최신 실습장비 구축, 전용 고시실 운영, 다양한 동아리와 학술 동아리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창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전원주택/상가/무인텔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될 혁신도시 인근 전망최상 매4억
- 나주시 세지면 교산리 전(자목 임야) 20,495 임대수익약 호 3억7천만
- 나주시 공산면 통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4성급★ 호텔건물매매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연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868-5151

중흥 s클래스 스카이31

6층/8층/13층/19층/20층 49m2
보300/월35만원

1층 30평 상가
보1억/월350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